

## tvN '로맨스는 별책부록' 통해 한 단계 성장한 두 배우 정유진 & 위하준

연기자 정유진(30)과 위하준(28)은 17일 종영한 tvN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시청자들에게 얼굴 도장도 확실하게 찍었다. 얻은 만큼 "더 잘 할 걸"이라는 아쉬움이 입안에서 맴돌지만 무뎠고 있을 시간이 없다.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푹푹 뭉친 두 사람을 13일과 14일 각각 스포츠동아 편집국과 청담동 FNC엔터테인먼트에서 만났다.



연기자 정유진은 "나와 성격이 닮은 캐릭터를 만나면 어떨지 궁금하다"며 다양한 도전을 기대했다. 사진제공 | FNC엔터테인먼트



연기자 위하준은 "거친 액션 연기에 도전하고 싶다"며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 “농구로 땀 흘리고 맥주 스트레스 싹 날아가죠”

정유진은 연기 데뷔 전 패션모델로 활동하며 표정이 아닌 '대사'로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정이나 제스처와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첫 무대는 2015년 SBS '풍문으로 들었소'였다. 이때부터 '로맨스는 별책부록'까지 승승장구 중이지만, 이 기간 남모르는 시련의 시간을 보냈다. 2016년 '더블유'를 끝내고 1년을 쉬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온 몸에 쥐가 나고 허리 디스크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회복하지 못하면 '대사는 연기를 못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만 불안하고 초조했다."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 친구들과 여행하며 영화도 마음껏 보는 등 안정을 취했다.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출발선에 서기 위한 과정이라 여겼다. 기다림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안겨줬다. 휴식 이후 일이 술술 풀렸다.

정유진은 "삼적으로 여유가 생기다보니 대본을 분석하는 시야가 넓어졌 것 같다"며 "점점 분량이 늘어나면서 작품에 임하는 자세도 이전보다 더 진지해졌고 책임감도 커졌다"고 했다. 이어 "커져가는 연기 열정이 나에 대한 믿음을 깊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긍정적 사고로 자신감을 키운 힘이다.

"상대방과 호흡이 잘 맞으면 순간 현장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낀다. 이 느낌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연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스트레스 앞에서도 유연해진 그는 "나의 발전을 위해 스트레스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생각이 막히면 늦은 밤 한강공원에서 농구하며 땀을 흘린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TV 앞에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신다. "집순이"여서 내 공간에 있을 때가 장편안하다"며 웃는다.

정유진은 실제 성격과 비슷한 캐릭터를 만났을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가 가장 궁금하다. 실제로는 '로맨스는 별책부록'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속 당당함과 거리가 먼 "조용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했다. 가장 친한 친구도 오래 알고 지낸 중고교 동창생들이다.

"그동안 캐릭터 때문에 딱 버려진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정유진다운' 인물에 대한 시청자 공감을 얻는 게 내 숙제이다. 반감을 산다면 이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은 가리는 것 없이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고 싶다."

사랑에 있어서는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한다. 짝사랑을 고백한다면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야 마음을 연다. 정유진은 "따뜻하며 배려 깊고, 자신을 낮출 줄 알며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나열했다. 이에 "주변에서는 연애 못할 거라 하더라"며 웃는 그는 "어딘가 분명 있을 텐데 제가 못 찾는 거다"며 생긋 미소 지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 “군대에서 늘 웃는 연습 빨리 다녀오길 잘했죠”

위하준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다.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막내아들이 갑작스럽게 꺼낸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당연히 심한 반대로 이어졌다. 졸업 후 고향인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를 떠나 꿈을 위해 서울로 가겠다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다. 위하준은 부모님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썼다.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였다."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연기자를 꿈꾼 건 아니었다.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내 부족함에 충격을 받았다. 사투리도 잘 고쳐지지 않아 오기가 생기더라. 언제부터든 모든 대화의 주제는 연기가 됐고, 연기에 목매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위하준의 꿈을 향한 여정은 2011년 대학 진학과 동시에 입대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성숙해지고 성격도 달라졌다. 학창시절 "군기반장"으로 불릴 정도로 이기적이고 호불호에 대해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해 의도치 않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사라졌다. 변하지 않았다면 연기자로 발을 내딛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땅굴처럼 성격이 어둡고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다. 군 복무하면서 이런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됐다.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웃는 연습을 많이 했다. 인내심이 생기고 성격도 유해졌다."

그는 "지금 생각해도 군대에 빨리 다녀온 건 가장 잘한 일"이라며 소리 내 웃었다.

"하지만 내 연기에 만족하기는 아직 어렵다. 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심하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쉽지 않다. 빨리 털어내고 반성해 스트레스를 좋은 방향으로 틀려고 노력 중이다. 잘 못한 부분에만 치우쳐 있으면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진다. 자책하는 순간만큼은 연기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게 그는 고비마다 잘 넘겨왔다.

든든한 지원군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가족과 팬, 손예진과 이민정 등 선배들을 포함해 소속사 식구들 뿐만 아니라 연기학원에 다닐 당시 동고동락한 친구들도 늘 그를 응원한다. 그는 "제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며 "집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연기에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미소 지었다.

위하준은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지서준을 연기하며 처음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도전했다. "오글거리고 무뎠던 성격"이 화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해 자신감을 얻었다.

"여자친구한테는 굉장히 로맨틱하다. 하하! 연애를 안 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감정이 건조해지는 거 같아 다시 하고 싶다. 연애는 사람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힘이 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정유진** ▲1989년 2월19일생 ▲2012년 동덕여대 모델과 졸업 ▲2015년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로 데뷔 ▲이후 '처음이라서' '무림학교' '더블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출연 ▲영화 '좋아해줘' 조연

**위하준** ▲1991년 8월5일생 ▲2011년 성결대 연극영화과 입학, 현재 휴학 중 ▲2015년 영화 '차이나타운'으로 데뷔 ▲영화 '박열' '반드시 잡는다' '곤지암' 등 출연 ▲드라마 '굿바이 미스터 블랙' '황금빛 내 인생'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최고의 이혼' 등 출연

#### 연예뉴스 HOT 5

#### 코카인 혐의 쿠시, 집행유예 선고

쿠시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은 래퍼 겸 작곡가 쿠시(김병훈·35)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추징금 87만5000원도 선고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과 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구매,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 '버닝' 이창동 감독, AFA서 감독상

이창동 감독  이창동 감독이 제13회 아시아 안필름어워드에서 영화 '버닝'으로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 감독은 17일 홍콩 TVB시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개봉한 '버닝'으로 두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또 공로상도 받았다. 이 감독은 앞서 2008년 '밀양'으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2011년에는 '시'로 감독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가수과 배우로 활동 중인 김재중은 베스트 제너레이션상을 받았다.

#### 박보검 2부 투어, 홍콩팬 5000명 열광

박보검  연기자 박보검의 아시아투어가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박보검은 아시아 팬미팅 투어 '좋은 날'을 시작하고 16일 다섯 번째 무대인 홍콩의 아시아 월드 엑스포에서 5000여 팬들과 만났다. 이날 박보검은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등 팬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일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직접 사인한 소장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1월 서울에서 시작한 투어는 23일부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 태연, 싱글 음반 '사계' 발표

태연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이 24일 싱글 음반 '사계'를 발표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사계'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블루' 총 2곡이 담겼다"고 밝혔다. 태연의 신곡은 지난해 6월 솔로 미니 3집 '섬씽 뉴' 이후 9개월 만이다. 태연은 신곡 발매와 함께 23일과 2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앙코르 콘서트 '아포스트로피 에스...원'을 열고, 4월13일 일본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5월까지 4개 도시에서 투어를 진행한다.

#### 김서형, 프로야구 잠실 개막전 시구

김서형  연기자 김서형이 프로야구 시구자로 나선다. 김서형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개막전 시구자로 발탁됐다. 이를 통해 김서형은 2월 화제 속에 종영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통해 얻은 인기를 과시한다. 개막전은 정규 시즌의 시작을 알리며 다른 경기보다 팬들의 주목도가 높아 그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